

2024년 상반기 유로지역 금융안정 상황 평가 및 전망

- 유럽중앙은행은 상반기 유로지역 금융안정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('24.5월), 전반적인 금융안정 상황이 많이 개선되었으나, 부문별 취약점이 상존한다고 평가
- 미중 경쟁, 러-우 전쟁 등 다양한 지정학적 갈등으로 인해 금융시장의 하방 리스크가 확대된 가운데 올해 유럽과 미국에서의 선거일정 등으로 불확실성이 높음.
 - 유로지역의 경제침체에 대한 우려는 해소된 가운데 테일 리스크에 대한 정책대응 필요

그림 1. 글로벌 정책 불확실성과 지정학 리스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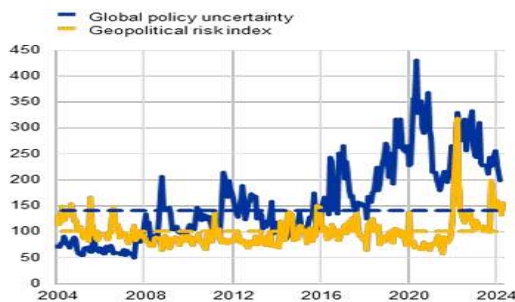


그림 2. 상업용 오피스 임대료 기대 성장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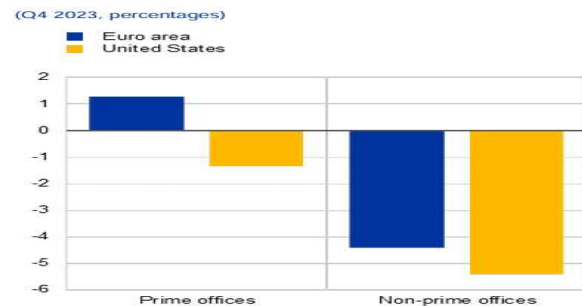


그림 3. 은행 수익성 지표

(Q4 2021-Q4 2023, percentages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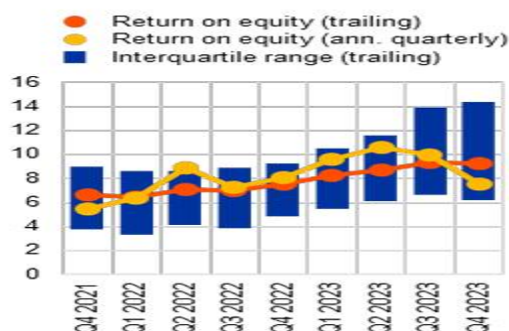


그림 4. 거대 보험사 그룹의 SCR

(Q1 2021-Q3 2023, percentages)



주: 그림 2의 prime office는 핵심업무 지구 내 오피스, non-prime office는 비핵심 업무지구 내 오피스 의미
자료: ECB(2024)

- 긴축적인 금융여건이 취약한 가계, 기업 및 정부의 복원력을 시험하고 있는 가운데 부문별로 상이한 리스크 요인이 상존함.
- [금융시장]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이 많이 해소된 가운데 주요국에서의 통화정책 완화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으로 고수익고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가 늘고 있으나,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급격한 가격 조정 가능성 상존

- 유로지역의 금융시장 변동성은 미국 국채시장 리스크와 같은 외부변수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
 - [부동산시장] 주거용 부동산의 가격 하락세가 진정되는 모습을 보인 반면 상업용 부동산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가격 하락이 예상됨.
 - 팬데믹에 따른 재택근무 증가 등으로 사무실 임차수요가 감소한 가운데 부동산 회사들은 임대수입 감소와 고금리로 인해 자금조달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.
 - [은행] 은행 수익성은 2023년 이후 둔화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기후위험과 같은 구조적인 리스크 대응 필요성이 증대되고 고금리와 경제둔화에 따른 비은행 금융기관의 부실 가능성에 적절한 대응 요구
 - [비은행 금융기관] 현금 및 유동자산 보유량이 낮은 수준을 기록한 가운데 유동성 차원의 대규모 증거금 요청 등에 따른 리스크 등 취약성이 높게 유지되고 있음.
 - [투자펀드] 포트폴리오 내 미국 IT 기업 등의 주식투자 집중도가 높으며, 부동산 투자펀드의 경우에는 부동산 시장 침체에 따른 매도 가능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음.
 - [보험사] 지급요구자본비율(SCR)이 규제기준을 크게 상회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나 생명 보험사를 중심으로 한 수익성 악화 우려 상존
 - * 경기둔화 및 고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가계 실질소득 감소, 고금리 자산 대체투자 등의 이유로 신규 보험수요 감소
 - [기업] 에너지 가격하락으로 기업의 수익성 부담이 크게 개선되기는 했으나, 경제활동 둔화 가능성, 인건비 상승 및 고금리에 따른 자금조달 비용 증가 등의 하방 리스크는 상존
 - * 팬데믹 기간 중 발행한 저금리 회사채 만기 도래로 인해 롤오버 과정에서 조달비용이 상승하는 가운데 글로벌 공급망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을 경우 기업들의 채무불이행 가능성 상존
 - * 2022년 6월 대비 2024년 3월 기준 업종별 1년내 부도가능성은 소매업이 가장 높으며, 다음으로 통신, 도매, 화학 업종 등으로 평가됨.
 - [가계] 임금상승과 팬데믹 기간 중 늘어난 저축액 등으로 가계부문의 금융여건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으나, 고금리로 인한 대출 상환에 있어서 어려움은 상존
 - * 향후 3개월 기간 중 주담보 대출 상환에 대한 어려움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구에서 저소득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증가
 - [정부] 전반적인 재정기반 약화 및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로 인해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 상존
- 거시경제 환경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은행부문의 안정적인 복원력 유지가 중요하며, 비은행 금융기관의 취약성 개선을 위해 정책당국의 포괄적인 정책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전망
- 한편 유럽중앙은행의 금리인하 가능성이 높게 전망되고 있는바 금융시장의 긴축여건이 다소 완화될 가능성 상존

(참고자료: European Central Bank, Financial Times, Bloomberg 등)

오태현 선임연구원